

# 2022년도 제1회 관광체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3166호
2.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3. 제출일자 : 2022년 3월 17일
4. 회부일자 : 2022년 3월 23일

## II.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가. 세입예산안 : 해당사항 없음

나. 세출예산안

-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중 관광체육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411억 2천1백만원의 1.3%에 해당하는 31억 9천만원 증액된 2,443억 1천1백만원임.

### < 관광체육국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률
관광체육국	(×21,772) 244,311	(×21,772) 241,121	3,190	1.3%

### Ⅲ.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주우철)

#### 1.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중 관광체육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411억 2천1백만원의 1.3%인 31억 9천만원이 증액된 2,443억 1억1백만원임.

#### < 관광체육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률
세입예산	-	87,080	-	-
세출예산	(×21,772) 244,311	(×21,772) 241,121	3,190	1.3%

#### 2. 추가경정예산안 내역

##### 가. 세출예산안

- 관광체육국 세출예산은 ▶서울관광재단 출연금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사업 ▶의료관광 활성화 ▶ANOC총회 개최 ▶서울형 스포츠 산업육성 지원 사업과 ▶생활체육대회 운영 및 생활체육진흥 사업 등 총 6개 사업에서 35억 1천만원이 증액되고, ▶서울특별시체육회 육성 사업에서 3억 2천만원이 감액되어 총 31억 9천만원이 증액편성됨.

### <관광체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총괄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2년 기정예산	추가경정		변경예산액	사업수
		증감액	증감률		
총 계	241,121	3,190	1.3%	244,311	7
관 광 분 야	83,920	1,790	2.1%	85,710	3
체 육 분 야	157,201	1,400	0.9%	158,601	4
관광정책과	75,753	1,700	2.2%	77,453	2(1)
서울관광재단	48,071	1,500	3.1%	49,571	1
관광산업과	8,167	90	1.1%	8,257	1
체육정책과	83,842	1,080	1.3%	84,922	3
체육진흥과	61,633	320	0.5%	61,953	1
체육시설관리사업소	11,726	-	-	11,726	-

- 관광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2.1%인 17억 9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체육 분야는 0.9%인 14억원이 증액되었음. 이번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 중 관광·체육분야는 시민들의 여가 생활 조성 및 일상회복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편성되었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억제되었던 잠재적 수요에 대응할 것으로 보임.

## < 관광분야 >

- 관광체육국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중 관광분야는 총 3건, 17억 9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1) 서울관광재단 출연금(사업별설명서 429쪽)

- 서울관광재단 출연금은 서울관광재단이 추진하는 서울관광 활성화 전략으로 한류스타를 활용한 ‘서울관광 해외광고 제작’ 사업에 15억원이 증액(출연금 총액 495억 7천1백만원) 편성되었음.

### < 서울관광재단 글로벌마케팅 사업 >

(단위:백만원)

구 분	본예산	추가 경정 예산안	계	주요 내용
서울관광 해외광고 제작	2,322	1,500	3,822	- 서울관광 활성화 브랜딩 전략수립 - 한류스타 활용 홍보영상, 지면광고 제작 등
글로벌 축제·이벤트 연계마케팅	1,000	-	1,000	- 글로벌 빅이벤트 연계 서울관광 홍보마 케팅 등
해외 홍보	2,700	-	2,700	- 서울관광 홍보영상, 광고 송출 - 서울관광 핵심사업 연계 홍보프로모션 등
합 계	6,022	1,500	7,522	

- 2022년도 ‘서울관광 해외광고 제작’ 사업비는 23억 2천2백만원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15억원을 합하여 총 38억 2천2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동 사업은 한류스타를 활용한 홍보영상, 지면광고를 제작하여 서울 관광의 해외주요대상지 10여개국에 송출·배포하는 것을 목표로 한류스타 영향력을 활용한 긍정적 마케팅 전략으로 볼수 있으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서울관광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위해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한류스타 영향력이 서울관광콘텐츠와 직접적인 연관이 부족하여 실제 서울관광의 매력이나 장점을 홍보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대형계약 위주의 사업 진행으로 인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다양한 업체의 협업이 어렵다는 점은 수 차례 우리 위원회의 지적을 받았으므로 향후 사업방식의 개선 논의가 필요해 보임.

## 2)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사업(신규사업, 사업별설명서 434쪽)

- 서울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관광자원과 미디어아트를 결합하여 서울 관광자원의 가치 증대와 관광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사업에 2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음.

###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사업 추경안>

(단위: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x-) 200,000	(x-) 0	(x-) 200,000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x-) 200,000	(x-) 0	(x-) 200,000

- 동 사업은 미디어아트를 포함한 ‘야경이 매력적인 도시, 서울’ 로의 예술적 요소 결합을 통한 야간관광의 체계적인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1억원과 야간관광에 적합한 명소선정 등 시범운영에 1억원임.

- 동 사업은 2022년 예산안 심사 당시에도 동일하게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 전액 삭감(△2억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추경에 반영하는 것임.
- 우리 위원회는 ▶ 사업의 구체성 부족 ▶ 기존 서울관광재단의 연구 결과나 국제적인 모범사례 등의 연계 부족을 사유로 동 사업의 추진을 반대하였으나,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에도 시장요청사항인 ‘미디어아트’ 만 추가되었을 뿐 삭감된 본예산의 사업과 차별성을 찾기가 어려움.
-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기본원칙인 ▶ 본예산 부족분의 보충편성이나 ▶ 본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한 조치도 아니므로 동 사업의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공감하기 어려움.
- 한편 서울시는 지난 2월 보도자료를 통해 2022년을 ‘디지털 감성 문화도시’ 원년으로 선포하였고, 균형발전본부, 문화본부 등에서 미디어아트 관련 사업을 진행 중임.
- 서울시 균형발전본부 광화문광장추진단은 ▶광화문광장 주변 미디어파사드 설치사업으로 2022년도 26억 9천2백만원이 기편성되었음.
- 서울시 문화본부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주변부 및 서울도서관 등을 활용한 ▶미디어아트 서울 설치·운영<sup>1)</sup> 사업에 2억원, ▶미디어아트 빛예술 정책기반 조성 사업에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1) 2022년도 “미디어아트 서울 설치·운영” 사업은 1억5천만원이 기편성 되어있음.

- 이같이 동일사업이 문화본부, 관광체육국, 균형발전본부에 중복 편성되어 있어 예산낭비가 우려됨.

### 3) 의료관광 활성화(사업별설명서 437쪽)

-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의 경우 ‘서울의료관광 공항 픽업 및 센딩’ 3천만원, ‘웰니스 관광 체험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6천만원이 증액된 10억 2천7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 추경안>

(단위: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x-) 1,027,000	(x-) 937,000	(x-) 90,000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x-) 1,027,000	(x-) 937,000	(x-) 90,000

- 증액 편성된 두 사업은 2022년도 예산안 심사 시 우리 위원회에서 전액 감액(△9천만원)된 사업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동일하게 제출한 것은 추경 당위성이 확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를 다시 추경안에 반영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서울의료관광 공항 픽업 및 센딩’ 사업의 경우 특정 분야의 민간병원에 대한 공적지원으로 특혜의 소지가 있음에 따라 삭감되었음.
- ‘웰니스 관광 체험비 일부지원’ 사업 또한 대부분 중상위권 소득수준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서비스로 관련 업계도 대부분 탄탄한 자금

력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므로 공적지원 영역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삭감되었음.

### < 체육분야 >

- 관광체육국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중 체육분야는 총 4건, 14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4) 서울특별시체육회 육성(사업별설명서 442쪽)

- 서울특별시체육회<sup>2)</sup> 육성 사업은 기정예산 198억 7천2백만원에서 3억 2천만원 감액된 195억 5천2백만원이 편성됨.

#### <서울특별시체육회 육성 추경안>

(단위: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x425,000) 19,551,997	(x425,000) 19,871,997	(x-) △320,000
사무관리비	(x-) 25,000	(x-) 25,000	(x-) 0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x-) 12,600	(x-) 12,600	(x-) 0
민간경상사업보조	(x425,000) 13,504,265	(x425,000) 13,824,265	(x-) △320,000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x-) 6,010,132	(x-) 6,010,132	(x-) 0

- 2) 서울시체육회는 '20년 1월 민선1기 출범 이후 '21년 5월 독립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전국(동하계)체육대회·전국소년체육대회·서울소년체육대회 참가지원, 서울시 체육 관련 행사 및 대회 홍보 운영, 25개 자치구체육회 및 75개 회원종목단체 지원 및 국제스포츠대회 개최 등을 주요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음.

연내 집행이 불투명한 국제대회 예산을 감액하고 수요도가 높은 생활체육대회 운영 및 생활체육진흥 사업(사업별설명서 453쪽)을 증액하여 시 재정에 추가 부담없이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실국 내 예산을 재배정하려는 것임.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대면활동, 체육시설 이용의 제약으로 각종 생활체육대회는 축소 운영·취소되었으며 특히 정부의 엄격한 방역절차에 따른 입국 제한으로 국제대회 개최에 어려움이 있었음.
  - '21년도의 경우 서울국제마라톤대회, 아시아대학 치어리딩 선수권 대회 등이 개최되었고 ' 20년도의 경우 서울국제크로스컨트리 스키대회, 서울국제마라톤대회, 서울 국제힙합에어로빅 대회 등이 한정적으로 개최되었음.
- 위드코로나 전환 국면에서 각종 스포츠 행사가 개최될 것으로 전망되나 국제대회가 연내 활성화되기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바, 국제규모 대회 개최는 축소하고 민간단체 중심의 생활체육대회는 확대하는 실·국내 예산 재배정조치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정부 방역지침 등 여건을 고려하여 대외적인 스포츠 강대도시 도약을 위한 노력(국제대회 개최 등)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는 바 임.

5) 서울형 스포츠산업 육성·지원(신규사업, 사업별설명서 447쪽)

- 서울형 스포츠산업 육성·지원은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스포츠산업 지원팀이 '22년 1월 1일 자 신설됨에 따라

서울형 스포츠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자문위원회 운영(2천만원)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8천만원)을 수행하기 위한 1억 원이 신규로 편성됨.

< 서울형 스포츠산업 육성·지원 추경안 >

(단위: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x-) 100,000	(x-) 0	(x-) 100,000
사무관리비	(x-) 100,000	(x-) 0	(x-) 100,000

- 동 사업은 「스포츠산업진흥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2007년 10월 시행)하는 것을 근거로 하며 문체부는 2015년부터 매년 스포츠산업 백서, 스포츠산업조사 결과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음.
- 1년 단위로 발행하는 스포츠 산업백서, 스포츠산업조사 결과보고서는 지역별 사업체수, 매출액, 종사자 수와 같은 스포츠산업 공급 현황과 관람스포츠, 참여스포츠 등의 수요 현황 및 관련 산업정책에 대해 조사하고 있음.

- 다만 서울시의 스포츠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현황 및 실태조사 용역을 별도로 수행하기 위한 예산 편성이 추가경정예산 편성 원칙인 시급성에 부합하는지 공감하기 어려움.
- 또한 서울형 스포츠산업 육성·지원 현황 및 실태조사 용역은 신규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학술용역에 해당됨.

최근 2년간 관광체육국은 연구용역으로 서울관광플라자 조성 사업계획 수립 및 타당성 연구용역, 서울 관광서비스 안내체계고도화 방안 연구, 국공 발전 종합계획 학술용역, 서울특별시립체육박물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을 수행하였으며 스포츠산업 육성·지원 계획 수립과 그 목적과 형태에 차이가 없음.

### < 최근 2년간 관광체육국 연구용역 발주 내역 >

사업 연도	담당 부서	연구명	목적	계획 예산	실집행 예산	연구기관	연구결과 주요내용
2020	관광 정책과	서울관광플라자 (가칭 서울관광청) 조성 사업계획 수립 및 타당성 연구용역	서울관광플라자 조성사업의 타당성과 지방재정 투자에 대한 당위성 확보	80,000	72,120	재단법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관광플라자 매입조성 시설(세운4구역 업무시설)의 공간배치, 조직운영 및 효율적 운영관리 방안 등 사업계획 수립</li> <li>○ 서울관광플라자 조성계획의타당성 조사분석</li> </ul>
2020	관광 산업과	서울 관광서비스 안내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관광안내소·관광정보센터 운영의 재단 고유사무 이관 및 실질적 통합 운영	100,000	51,860	코어마인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광정보센터·관광안내소는 표준화된 서비스 제공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통합운영이 필요하며, 오랜기간 업무를 담당하여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서울관광재단이 운영주체로 적합함</li> <li>○ 사·재단 간 명확한 역할분담 필요</li> </ul>

사업 연도	담당 부서	연구명	목적	계획 예산	실집행 예산	연구기관	연구결과 주요내용
2020	체육 정책과	국공 발전 종합계획 학술용역	전통활쏘기 문화를 발굴·복원하고 관광자원화하기 위한 종합계획 수립	100,000	97,000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활터조사 및 관광자원화 방안 등 연구</li> <li>○ 향후 국공발전 종합계획 수립에 활용</li> </ul>
2020	체육 정책과	서울특별시립체육 박물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	「서울특별시립체육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	100,000	95,000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외 체육박물관 운영 실태 및 수요조사</li> <li>○ 시립체육박물관 건립 타당성 검토</li> <li>○ 향후 체육박물관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li> </ul>

- 학술용역의 경우 예산 편성 전 용역시행의 타당성, 과업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에서 사전심사를 받도록 되어있으나, 동 예산의 경우 별도의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예산편성 사전절차 이행 요건을 갖추지 못함.
- 서울시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은 시정운영상 예상하지 못한 중요하고 긴급한 현안 발생 시 정책자료 활용 및 사업자문을 위해 수행하는 학술용역비로 시정시책연구용역 포괄예산 13억 8천6백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한 바, 별도로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지 않고 기 편성 예산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6) 2022년 제26차 ANOC총회 개최(신규사업, 사업별설명서 450쪽)

- 2022년 제26차 ANOC 총회 개최를 위해 13억원이 신규 편성됨.

< 2022년 제26차 ANOC총회 개최 추경안>

(단위: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x-) 1,300,000	(x-) 0	(x-) 1,300,000
사무관리비	(x-) 50,000	(x-) 0	(x-) 50,000
민간경상사업보조	(x-) 1,250,000	(x-) 0	(x-) 1,250,000

- 동 사업은 ‘총사업비 30억원 이상 시·자치구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에 해당하여 중앙투자심사 대상이며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사후평가 실시’ 조건으로 투자심사를 통과('22.3.3.)함.

※ 총 사업비 50.5억(서울시 13억원, 문체부 7.8억원, 대한체육회 29.7억원)

- 행정안전부의 「2022년~20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기준」('21.7.)에 따르면 추경 시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후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투자사업비가 아닌 경우 예산 반영 후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한 예외조항을 근거로 서울시는 추경예산을 먼저 편성하고 다음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계획임.
- ANOC(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 Association of National Olympic Committees) 총회는 아시아 44개국, 유럽 50개국, 아메리카 41개국, 아프리카 54개국 등 총 206개 올림픽위원회 연합체로 정보, 경험 공유를 위한 정례 회의임.

- 서울은 1986년 제5차, 2006년 제15차 ANOC총회 개최에 이어 2032년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유치추진 전략으로 2021년 제25차 서울 개최를 준비함.

### < 2021년 제25차 ANOC총회 개요>

- 기간 : 2021. 10.22.(금)~10.28(목)/ 총회는 26~27 양일간 개최
- 장소: 코엑스 컨벤션센터
- 참가규모: 206개국 약 1,500여명  
(토마스 바흐 IOC위원장, IOC위원, ANOC 집행위원 등)
- 소요예산: 50억원(대한체육회 22.2억, 문화체육관광부 15.3억, 서울시 12.5억)

- 그러나 2032년 올림픽 유치지로 호주 브리즈번 확정이 예정된 상황에서('21.7) 서울의 총회 개최 실익이 크지 않다는 판단과 함께 코로나19 재확산세로 총회 측의 방역 완화요구<sup>3)</sup>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여 결국 취소('21.7.)됨.
- 이후 대한체육회는 차회(2036년) 올림픽 유치 등을 위한 서울시 인지도 제고 및 국제스포츠 역량강화를 위해 2022년 제26차 ANOC 총회 유치 의사('21.10.15.)를 밝혔고, 서울 개최가 확정('21.10.25.)됨.
- 이에 2022년 서울시 예산안 제출('21.11.1)이 임박한 상황에서 총회 서울 개최가 확정되어 본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았고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서울시가 부담할 예산 13억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임.

3) ANOC측은 무비자 입국가능 국가(19개) 추가 확대와 입국 시 PCR검사로 인한 대기(8시간)거부, 분산 입국에 대한 조치 거부, 개인별 식사 제공방식 거부 및 식사도중 대화허용 요구, 행사장 출입 시 발열체크 및 건강상태 확인 거부 등 완화된 방역수치를 요청함.

**< 2022년 제26차 ANOC총회 개최 세부 편성내역 >**

과목구분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사무관리비	○ ANOC 실사단 대응, 홍보 및 마케팅 등	=	50,000천원
	증감사유		
	2022년 제26차 ANOC총회 개최에 따른 지원예산 반영(단년도 행사)		
민간경상사업보조	○ 임차료 - 총 1,131,075천원 중 50%분담	=	565,538천원
	○ 운영 대행사 용역비 - 총 2,810,000천원 중 23% 분담	=	645,262천원
	○ 행사진행비 - 회의장, 총회장, 만찬장, 사무국 등 식음료	=	39,200천원

- 서울시는 총회 개최를 유치하기에 앞서 2032년 올림픽 유치 실패 요인을 파악하고 차회 올림픽인 2036년에 남북 공동유치를 지속 추진할지 남한의 단독유치를 추진할지 등에 대한 다각도적인 검토가 우선되어야 함.

**< 올림픽 유치 방향 검토 >**

구분	장점	단점	고려사항
공동유치	올림픽 유치를 통한 한반도 평화분위기 조성 기반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측의 후속올림픽 공동유치 동의여부(또는 협조여부) 확인 곤란</li> <li>· 남북관계 불확실성으로 인해 유치가능성 미비 (IOC 안정성 중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속유치에 따른 국내절차 재추진 필요</li> <li>· 공동유치 지속 추진 전 북한과의 협의 필요</li> </ul>
단독유치	올림픽 유치 추진과정에서 북한으로 인한 불확실성 일부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올림픽 단독유치에 대한 국민들의 호응 여부 및 유치 경쟁력 불투명</li> <li>· 상황에 따른 분산개최 방안에 대한 IOC의 수용여부 및 북한의 반응 불투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속유치에 따른 국내절차 재추진 필요</li> <li>· 단독 유치 추진에 대한 북한의 반응 예측 필요</li> </ul>

- 또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반등을 견인하기 위한 지방재정의 적극적 운용이 필요한 상황에서 불확실한 올림픽 유치추진의 일환인 총회를 개최하기 위해 1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7) 생활체육대회 운영 및 생활체육 진흥(사업별설명서 453쪽)

- 시민들이 선호하는 민간단체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 활성화 및 시민 여가선용에 기여하고자 기정예산 33억 4천만원에서 3억 2천만원 증액한 36억 6천만원이 편성됨.

### <생활체육대회 운영 및 생활체육 진흥 추경안>

(단위: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x784,000) 3,660,000	(x784,000) 3,340,000	(x-) 320,000
사무관리비	(x-) 160,000	(x-) 160,000	(x-) 0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x-) 10,000	(x-) 10,000	(x-) 0
민간경상사업보조	(x-) 1,706,000	(x-) 1,386,000	(x-) 320,000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x784,000) 1,784,000	(x784,000) 1,784,000	(x-) 0

- 동 사업의 경우 관(官) 주도 사업이 아닌 비영리 민간단체가 공모를 통해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사업내용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단계별로 지원하고 있음.

- 코로나 이전에는 유·청소년, 직장인·어르신, 가족스포츠 등이 활발하게 운영된 바, 시민들이 쉽게 생활체육을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민간단체 생활체육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 IV. 종합의견

-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중 관광체육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411억 2천1백만원의 1.3%인 31억 9천만원이 증액된 2,443억 1억1백만원임.
- 관광분야는 포스트코로나 서울관광 준비를 사유로 서울관광 홍보를 위한 서울관광재단 출연금 증액과 야간관광, 웰니스관광 등 서울관광 신규콘텐츠 개발을 위한 증액을 편성하였음.

그러나 2022년 본예산 심사 시 의회에서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삭감한 사업을 미디어아트, 의료관광 등 시장역점 사업이라는 사유로 동일한 내용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요청하였음.

- 체육분야는 주관부서 변경(체육정책과→체육진흥과)을 통해 개최가 불확실한 국제대회 예산을 일부 삭감하고 수요가 높은 민간단체 주도의 생활체육예산을 일부 증액하는 방식으로 시 재정의 추가 부담없이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긍정적으로 평가됨.

신규로 편성한 스포츠산업 육성·지원 계획수립을 위한 사업 및 2022년 ANOC(국제올림픽위원회 연합회) 총회 개최 지원 사업은

사전심사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반영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기편성된 예산을 활용할 여지가 있는 사업은 재고할 필요가 있으며 개최가 불확실한 올림픽 유치를 위해 단년도 행사성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시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지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함.

담당 조사관	박지혜 02-2180-8117
전문위원	임창균 02-2180-8114